

반갑다! 상무지구 문화공간



광주 상무지구에 문을 연 '클럽 롤링 스톤즈'는 새로운 문화 메카를 꿈꾼다.

센트럴 관광호텔 지하에 문예 클럽형 공연장 '롤링스톤즈'



밴드·연극·강연·문화행사 활용
지역 뮤지션들에 대관료 할인
내일 개관일 윤도현 밴드 공연

뮤지션들과 가까이서 호흡할 수 있는 클럽 공연은 음악팬들의 큰 즐거움 중 하나다. 수많은 관객들과 부대끼는 대형 공연장도 좋지만 무대 위 가수들과 관객의 열기를 한번에 느낄 수 있는 소극장 공연은 관객을 흥분시킨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네버마인드, 보헤미안 등 광주의 클럽들은 고군분투 중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광주 상무지구는 유흥 시설이 대부분으로 아쉽게도 문화 시설은 극히 빈약하다. 그런 점에서 상무지구에 문을 연 '클럽 롤링스톤즈'(대표 임성연)의 존재는 반갑다. 센트럴 관광호텔 지하 2층을 리모델링한 '롤링 스톤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클럽 이름 '롤링스톤즈'가 적힌 입구를 지나면 100여평의 널찍한 공간이 눈에 들어온다. 스탠드 공연의 경우 250명, 의자를 놓을 경우 120석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드럼, 기타, 신디사이저 등 최고 수준의 악기와 음향시설, 모니터 등을 갖춘 무대와 휴게 공간이 눈에 띈다.

클럽 이름은 1962년 결성 후 지금까지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영국 록밴드 '롤링스톤즈'에서 따왔다. '영원한 악동'의 재기를 중심으로 한 그룹의 이미지처럼 개성 있는 활동성을 담보하고 이 공간이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공간으로 영원히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새로운 공연 문화 메카'를 꿈꾸는 '롤링 스톤즈'는 대중음악 공연을 중심으로 재즈, 뮤지컬, 연극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고 문화예술분야 강연, 기업 문화 행사 등도 유치할 예정이다. 공연은 한달에 한 번 정도 진행할 기획 공연과 대관 공연으로 구성된다.

동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후원사인 종합금융자산 관리 (주)빌립에셋(회장 임일석)은 공간 조성 및 운영 등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 수익에 의존하지 않고 새롭고 의미있는 공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큰 목표다.

개관일인 27일에는 클럽에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YB(윤도현 밴드)가 무대에 선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의 티켓은 이벤트를 통해 이미 배부가 끝난 상태다.

이후 12월1일까지 '롤링 스톤즈' 개관 페스티벌이 이어진다. 11월4일은 '오리날다'로 유명한 제리필터, 11월11일은 남성



윤도현 밴드

대표를 맡고 있는 임성연씨는 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하고 실용음악학원을 운영하는 등 서울과 광주에서 꾸준히 활동해 온 음악 전문가다. 그래서 지역 뮤지션들에게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려 한다. 정식으로 대관하는 지역 음악인들에게는 대관료를 50% 할인해주고 조만간 '화요예술무대' 등 다양한 기획 행사를 통해 인디밴드 등이 무대에 서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연 실황 등을 콘텐츠로 제작한다. 그밖에 공연장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인근 카페 등과 공유 해 버스킹 등도 진행할 생각이다.

5인조 펍페라 그룹 '빅맨싱어즈'와 6명의 여성연주자로 구성된 퓨전앙상블 '블랑'이 함께한다. 11월17일은 김제동의 토크콘서트에 열리며 오프닝 게스트로는 샌치한버스가 참여한다. 김제동 콘서트 역시 이벤트를 진행, 관객을 초청할 예정이다. 또 11월24일은 보컬리스트 김길중이, 11월25일에는 웨이스트드자니스, 빈싯트음니아, 더티라곤, 몽키피파르렛 등이 참여하는 인디라페 공연이 열린다. 페스티벌의 피날레는 12월1일 SAZA 최우준밴드와 NS재즈밴드가 장식한다. 문의 010-6543-875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조운성 작가 개인전 '해피 에너지' 26일~11월 1일 갤러리 북

서양화가 조운성(조선대 미술학과 교수)의 작품 세계를 관통해 온 건 '기호'다. 조선대 미대 석사 시절에는 과거의 시간을 되돌려 오늘의 모습을 탐구해 보는 이집트 문자 기호가 주된 관심사였다. 이후 그의 대표작이 된 '기호적 풍경' 시리즈는 나이가 샤넬 등 현대 소비사회를 대표하는 기호들을 전면에 배치했다.

이어지는 '씨앗으로부터' 시리즈는 팝아트적인 요소가 강조되고 비슷한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회화적 맛을 살리고 조형성의 결여를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탄생한 결과물이었다. 기호를 화폭에 재현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작가의 직관으로 기호를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쳤다.

4년전부터 작업하고 있는 '해피 에너지' 시리즈는 기존 작업들 보다 훨씬 자유로움이 느껴진다. 조 작가가 2017년 신작들을 모은 개인전 '해피 에너지'를 개최한다.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갤러리 북.



'Happy Energy'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해피 에너지를 전하고 싶다"는 어느 골짜기의 우송 소감을 들은 그는 그림을 통해서도 바로 그런 행복과 긍정의 에너지를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시리즈 제목을 '해피 에너지'로 정했다.

화폭에 등장하는 것들은 여전히 현대인들에게 익숙한 이미지들인 카드의 스페이드, 제품의 로고, 숫자, 알파벳 등이지만 각각의 소재들은 훨씬 자유롭게 노닌다. 크기, 화면 배치, 색깔 등이 같은 듯 달라 세세히 살펴보면 흥미롭다.

이번 전시작들은 제작 방식에서도 차별화를 뒀다. 관심있는 기호들을 채집해 붓을 들고 바로 캔버스에 옮기는 대신 컴퓨터를 통해 드로잉을 하고 손으로 색을 칠하는, 회화와 디지털적 요소의 결합을 시도한 작품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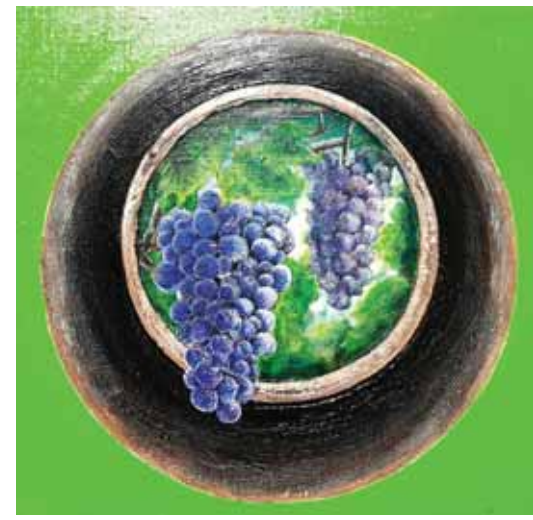
"오랫동안 '기호 덩어리'는 저에게 재미있는 놀이였어요. 현대 사회의 시각적 결과물을 제 자신의 시간으로 해석한 작업들이기도 했어요. 기존의 제 시리즈 작업들이 본질을 탐구하는 학구적 요소가 강했다면 이번 시리즈는 어떤 규칙을 유

지하면서 그 속에 감성을 주입해 변화와 자유로움을 추구했습니다.

이번 전시작에선 제2 연주자가 규칙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으면서도 그 속에서 자신만의 감성을 담아 프리스타일로 연주하듯, 유연한 흐름이 느껴진다. 조 작가는 회화와 입체 등 다양한 매체의 결합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탐구할 생각이다. 광주시미술대전 대상, 신세계미술상 등을 수상했다. 오프닝은 26일 오후 6시, 문의 010-9078-18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공연라 개인전 31일까지 우제길미술관

투박한 웅기 항아리 속에 담긴 건 주로 꽃과 과일들이다. 석류, 포도, 해바라기, 장미, 모란, 능소화 등이 열굴을 내밀고 있다. 어떤 항아리 속엔 한가로운 사찰 풍경을 담았다. 바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위로와 전하는 풍경이다.



'시간연습'

공연라 개인전이 오는 31일까지 우제길미술관에서 열린다. '시간연습'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신작 30여점이 출품됐다. 다양한 색깔의 사각형 프레임 위에 놓인 소박한 웅기 항아리 속에 담긴 것들은 작가의 마음이 어린 소재들이다. 항아리 안을 통해 비추어진 세상은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기도 하다. 작가는 그동안 우리가 쉽게 망각하고 잃어가는 과거를 현재와 함께 구축해 자신의 인생 속에서 존재감을 찾아가는 시간연습의 이미지를 화폭에 옮겼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문화예술 펀딩프로젝트

'만만계' 2차 모금 시작

시민이 내는 기부금에 똑같은 금액을 더하여 지역 예술인·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문화예술 펀딩프로젝트-만만계' 2차(100만원 이상 모금 달성/모금기간 종료)가 되면 모금액 1만 원당 1만 원을 매칭해 최종 지원하며 2차 프로젝트 사업비는 1000여 만원이다. 2차 모금 프로젝트는 ▲연극문화공동체 DICS의 '체류, 무대에서 바라보다 : 연극 '청춘소동' 공연 프로젝트' ▲정현기의 '양립의 시간을 담다' 사진 에세이 발간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2차 온라인 모금은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며 네이버에서 광주문화재단 검색 또는 광주문화재단 해피로그(happylog.naver.com/gjcfgive.do) 접속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문의 062-670-7957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신양파크호텔 가을이여행

기간·9월 1일~11월 30일 객실예약 ☎ 228-8000

가을 패키지

스탠다드룸 ₩ 100,000 / 디럭스룸 ₩ 110,000
객실박 + 조식인 + 사우나인 (조식인 추가시, ₩15,000)